

장수, 의암 주논개 축제 개최

조각보 김숙임 이사장, '주논개상' 추대 제52회 장수군민의 날 기념식도 열려

임진왜란 때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뛰어들어 순국한 의암 주논개 탄신 445주년 및 제52회 장수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1일 장수군 한누리전당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영수 군수와 김종문 장수군의회의장, 기관사회단체장, 신안 주씨와 해주 최씨 종친회,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례봉행과 기념식, 제3회 논개 따라 삼백리 행사 및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진행됐다.

의암사 영정각에서 열린 논개 제례봉행은 초헌관 장영수 군수, 아

현관 김종문 의장, 종헌관 김순홍(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장이 맡아 제례봉행을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제52회 장수군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발전과 향토문화발전에 앞장서 온 군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의암주논개상 추대식이 열렸다.

장수군민의 날 문화체육장에 운석빈 씨, 산업공익장에 임재성 씨, 효열장에 이정숙씨가 선정돼 수상했으며 문화체육장 운석빈(59)씨는 계북면 출신으로 계북면체육회원으로 26년간 활동하며 지역

체육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2014년 사과마라톤 대회 1위, 전북역전 마라톤대회 감부상, 2017년 전국마라톤협회 주관 금산마라톤 대회 2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마라톤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어 장수군의 명예를 드높였다. 또한 31년간 의용소방대원으로도 활동하여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했다.

산업공익장 임재성(64)씨는 장계면 출신으로 장계1교 재가설 공청회, 장계농촌임대주택 유치 공청회 등을 통해 행정과 주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으며, 장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하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혜택을 위해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에 기여했다.

임재성 씨는 장계면 자율방범대장과 장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지역안전에도 공헌했다.

효열장 이정숙(61)씨는 80년 장수를 구평마을 최병운씨와 혼인해 시부모와 같이 생활하며 치매에 걸린 시부가 돌아가실 때까지 7년간 지극적성으로 모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마을 일에 솔선수범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또한 남달라 장수군민의 장에 선정됐다.

의암주논개상으로 추대된 김숙임 씨는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송실대 사회복지정책 석사, 통일부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국방부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조각보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의암 주논개 탄신 445주년 및 제52회 장수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1일 장수군 한누리전당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의암주논개상 시상식에서 김숙임 이사장이 '주논개상'을 추대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지회장 안한수)는 1일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회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문예체육회관에서 가졌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한노인회의 의지에 부응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경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전행사로 문화공연, 민요, 전통가요 등 어르신들을 위한 흥겨운 무대 공연이 펼쳐졌으며, 모범 어르신과 어

르신을 잘 섬기는 효행자 23명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안한수 지회장은 "급변하는 시대에 노인의 역할 또한 변해야 한다."며 "부양받는 노인에서 사회에 봉사하고 후세들을 지도하는 어르신으로 거듭날 때다."고 역할을 강조했다.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은 기념사를 통해 "평생 나라와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공로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매 아리

진안군,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진안군은 1일부터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조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단풍철 산행객 급증과 추수 후 농산폐기물 소각 본격화로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예년보다 한 달 일찍 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책본부 운영기간 동안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각산불 감시·계도는 물론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작업을 통해 가을철 산불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진안군, 요양보호사 구강관리교육

진안군보건소(소장 김금주)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어르신의 구강관리를 위해 노인전문요양원을 시작으로 10월말까지 5개 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방문 구강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매년 치과의원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과 복지시설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구강관리를 위해 입소자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구강질환 예방 교육과 구강검진, 상담 등 구강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입소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 시설 종사자들에게 올바른 칫솔질, 구강건조증 예방, 틀니 관리 등 구강관리 요령을 교육함으로써 타인 의존도가 높은 생활자와 외병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내일 있는 구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필요한 칫솔과 틀니 세정제, 틀니보관함과 같은 구강위생용품도 배부하는 등 포괄적인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진안홍삼축제 안전사고 제로화

유관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진안군은 1일 홍삼축제(9~13일)를 앞두고 축제장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군청 상황실에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무진장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 실무위원과 축제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과 2019 진안홍삼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분야별 안전관리 실무위원들은 축제 팀으로부터 축제개요와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안을 제출받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유사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축제 개막 전날인 8일에는 전북도청, 소방서, 도 안전관리지문단, 군 안전관리지문단과 함께 점검단을 구성하여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제시된 의견과 보완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및 행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장인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은 "진안군 대표 축제인 진안홍삼축제는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큰 행사인 만큼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군, 10월 월례조회 개최

김기주 주무관 등 우수공무원상

무주군 10월 월례조회가 1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무주군 공무원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월례조회는 "힘을 모아 크게 성공한다"라는 주제의 영상물 시청을 시작으로, 이달의 우수공무원 및 반딧불축제 유공자 표창 시상, 소양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 주는 우수공무원상은 맑은물사업소 김기주 주무관과 산업경제과 이정 주무관, 보건행정과 이현호 주무관이 받았으며 기획실 유영주 주무관 등 공무원 28명과 무주중학교를 비롯한 바르게살기운동 무주군협의회 김동식 위원장 외 주민 19명이 제23회 무주 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반딧불축제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황인홍 군수는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들과 태풍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주민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라며 "누구 하나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무주다운 무주를 만들고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만큼 10월 한 달도 손맞잡고 힘차게 걸어 가보자"라고 말했다.

이어 농·특산물 관측 행사(10.28.~29. 서울시청광장) 개최와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 농·특산물 한마당축제(11.2.~3. 무주군 예체문화관 일원) 준비 등 각종 행사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했으며 2020년도 예산편성을 비롯한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4일 장수 동촌리 고분군 국가사적지정 기념식

한누리전당 야외무대에서 개최... 가야홍보관 개관식도 병행

장수군 대표 가야문화유산인 동촌리 고분군(東村里 古墳群)이 1일 국가사적지정문화재 사적 제552호로 지정됐다. 이를 기념하는 기념행사는 오는 팔처진다.

1일 장수군에 따르면 장수 동촌리 고분군은 장수군 장수를 마봉산(해발 723.9m)산줄기에 지름 20~30m 내외의 중대형 고총을 포함한 83기가 분포한 고분군이다.

오는 4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장수군은 동촌리 고분군(東村里 古墳群) 국가사적지정문화재 사적 제552호 지정 기념행사와 장수군 가야홍보관 개관식을 함께 진행한다.

기념행사에는 문화재청 정재숙 청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동촌리고분군 소개와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 가수 김혜연, 오승근 등 축하공연 등이 열린다.

전북도에서 최초로 건립된 가야홍보관은 전라북도 지역의 가야문화유산

에 대한 이야기를 패널, 홀로그램 등으로 알리며 특히, 2층에는 트리아트를 통한 장수군 대표 유적지에 대한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장수 동촌리 고분군이 국가사적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장수지역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써내려가게 됐다"며 "숨어 있던 장수 가야 역사를 널리 알리고 밝히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